

-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?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여, 말해보라. 아버지,

엄마, 누이 혹은 형제인가?

-나는 아버지도, 엄마도, 누이도, 형제도 없다네.

-친구들은?

-그대는 아직도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말을 내뱉는구나.

-조국은?

-난 그게 어느 위도에 걸쳐 있는지도 몰라.

-아름다움은?

-여신이고 불멸이라면 내 기꺼이 사랑하리...

-황금은?

-황금은 싫네, 그대가 신을 싫어하듯이.

-오,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사랑한단 말인가, **비범한 이방인**이여?

- 구름을 사랑하노라... 흘러가는 구름을...저기... 저곳에...

**경이로운 구름을!**

샤를르 보들레에르